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목표	아름다운 자연에 자리한 만연사를 탐방하며 우리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껴보자.		
해설주제	만연사의 설화와 문화유산		
해설재료	만연사의 유래, 창건설화, 문화유산 등	소요시간	12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분)
만남	인사나누기	- 인사나누기 - 프로그램 소개 - 일정안내, 주의사항 전달	무선 마이크 구급함	10
주제 해설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10
	만연사 이야기	- 만연사의 창건설화 - 만연사의 유래 - 만연사의 불교전설 - 만연사의 문화유산 1) 가람 배치 2) 문화재	사진 자료	90
마무리	느낌나누기	- 느낌나누기 - 인사하기		10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사나누기	<p>안녕하세요?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p> <p>오늘 무등산국립공원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셨는데 몸 상태는 어떠세요? 네, 모두 좋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p> <p>무등산국립공원 자연해설 프로그램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느끼고,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무등산국립공원의 동·식물자원, 역사·문화자원의 소개와 오감을 일깨우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자의 환경적 감수성과 생태적 상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국립공원의 프로그램입니다.</p> <p>여러분은 저와 함께 3시간 동안 만연사를 탐방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체험을 할 것입니다.</p> <p>안전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p>
무등산 국립공원 소개	<p>여러분, 혹시 무등산국립공원 방문은 처음이신가요?</p> <p>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p> <p>무등산국립공원은 2013년 3월 4일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호남의 진산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명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호남정맥에 속한 해발고도 1187m의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화순군에 걸쳐 있습니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등급이 없는 온전한 평등이란 의미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만연사 이야기 - 만연사의 창건설화</p>	<p>이곳 만연사(萬淵寺)는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79번지로, 만연산 계곡에 자리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의 말사입니다. 만연산은 옛날에 나한산(羅漢山)이라고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일주문에는 ‘나한산 만연사’라고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만연사는 고려시대인 1208년 만연선사가 창건했습니다.</p> <p>창건설화는 다음과 같이 전해옵니다. 어느날 만연선사가 무등산 원효사에서 수도를 마치고 조계산 송광사로 돌아가는 길에 무등산의 중봉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의 만연사 나한전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피곤한 몸을 잠시 쉬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열여섯 분의 석가불을 모실 불사를 하고 있는 꿈을 꾸다가 잠이 깨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 어느 새 눈이 내려 백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만연선사가 누운 자리 주변만은 눈이 녹아 김이 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토굴을 짓고 수도하다가 만연사를 세웠다고 합니다.</p> <p>그리고 옛 만연산의 이름인 나한산이 만연산으로 부르게 된 전설도 전해옵니다. 나한산에는 암자가 많았는데 그 중 한 암자에 예쁜 처녀 상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만연(萬淵)이었는데 한 스님이 만연을 연모하여 그녀를 숲 속으로 유인해 겁탈하자 만연은 그만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p> <p>그날 밤 스님의 꿈에 만연이가 나타나 “나는 죽었으나 나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지은 죄업으로 지옥을 면치 못할 것이니 하루 속히 너의 잘못을 뼈아프게 뉘우치고 나한산을 떠나 다시 착한 불자(佛者)가 되어라.”라고 했습니다.</p>
	<p>그는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 이야기를 주지 스님에게 들려드린 다음 나주목사를 찾아가 알아보니 과연 아들을 낳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기 전에 나주 목사의 꿈에 어린 사미승이 나타나 “저는 화순 나한산에서 공부하던 몸으로 억울하게 횡사를 당하고 다시 인연 따라 목사님 덕에 환생한 만연이옵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만연사 이야기</p> <p>-</p> <p>만연사의 창건설화</p>	<p>목사는 이상하게 여겨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몽한 상좌의 말대로 아이 이름을 만연이라고 지어서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열여섯 살이 되자 만연이는 출가할 것을 결심하고 목사에게 허락을 받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p> <p>아버지인 나주 목사는 비명으로 죽어 환생한 아들의 인연에 따라 산기슭에 절을 세워 아들 만연이에게 불도를 닦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이 절을 만연사(萬淵寺)라고 하였으며 만연사가 있던 나한산을 만연산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p>
<p>만연사 이야기</p> <p>-</p> <p>만연사의 유래</p>	<p>만연사는 창건 이후 큰 사찰로서의 법통을 이어왔던 듯합니다. 고려 후기 조계산 수선사의 창건주인 보조국사 지눌의 사리를 봉안한 사리각(舍利閣)을 비롯하여, 대웅전·명부전·나한전 등 3전각과 승당·선당·동상실(東上室)·서상실·동별실(東別室)·서별실·수정료(守靜寮)·송월료(送月寮) 등의 많은 전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내 중앙에는 큰 설루(說樓)가 있었으며 그 아래에 사천왕문과 삼청각(三清閣) 등도 있었습니다. 산내암자도 학당암(學堂庵)·침계암(枕溪庵)·동림암(東林庵)·연혈암(燕穴庵) 등 4암이 있었다고 합니다.</p> <p>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향나무로 삼존불상과 십대명왕상, 16나한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금어 비현(丕賢) 스님이 그린 괘불과 범종불사가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절은 병자호란 당시 외적 방어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창의일지(倡義日誌)』에 의하면, 1616년 12월 16일에 만연사 스님 지삼(智森)·지환(智環)·경훈(景勳) 등이 종이 10속(束)을 바쳐 군중일지(軍中日誌)를 만드는 데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30일에는 장 다섯 항아리와 마른 나물 100속을 의병장 조수성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듬해 1월 10일 지삼·지환 스님 등이 쌀 스무 말과 산나물 200 묶음, 장지 다섯 묶음, 유지 두 묶음, 삼으로 만든 신발 60켤레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만연사 이야기 - 만연사의 유래</p>	<p>1793년 9월에는 절에 큰 불이 일어나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던 국내 유일의 진언집 판각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은 이듬해 도료장 경관(慶冠) 스님에 의해 중건되었습니다.</p> <p>한말에는 당시 국창으로 불리던 이동백·이날치 명창이 만연사에서 창악을 연마했으며, 정광수·임방울 등 당대의 명창들도 이곳에서 창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p> <p>그러나 이렇게 유서 깊은 만연사는 6·25 한국전쟁으로 건물이 소실되어 지금은 대웅전·나한전·명부전·한산전과 요사채만 남아 있고 선정암과 성주암 두 암자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1978년부터 4년여에 걸쳐 주지 철안(澈眼) 스님이 재건한 것입니다.</p> <p>만연사의 서쪽 계곡에는 옛날 만연이가 살았다는 작은 암자터가 있습니다. 이 암자터에도 진각국사가 심었다는 큰 나무가 있고 11기의 부도가 있는데 스님들이 열반하면 여기에서 다비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화순읍지』에 진각국사의 목부도가 이곳에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p>
<p>만연사 이야기 - 만연사의 불교전설</p>	<p>만연사에는 만연선사 창건설화, 만연 낭자 전설처럼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주문 근처의 하늘을 찌를 듯 서있는 전나무는 둘레 3m, 높이 30m의 고목으로 화순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통하는 당간지주를 떠오르게 하는 이 나무는 수령이 800년 된 것으로 만연사를 찾은 진각국사가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p> <p>오랜 시간 만연사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지켜본 전나무 아래에는 석불이 있었는데 한때 화순중학교 신축 전 잡종지에 방치되어 있다가 화순중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석불도 운동장에 묻히고 말았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만연사 이야기	<p>그 후 만연사 주지 스님의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머리와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어 고통이 심하니 나를 하루 빨리 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꿈은 여러 번 계속 되었고 주지 스님은 계시는 곳을 알려달라며 조석 공양과 더불어 기도를 드렸다.</p> <p>그러던 어느 날 한 중학생이 절을 찾아와 놀면서 화순중학교 교정에 돌부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시 스님께서 중학교를 찾아가 교정과 동산을 두루 살펴보니 꿈속에서 보았던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나무 밑을 파 보았습니다. 과연 석불이 얼굴에 많은 상처를 입은 채 묻혀 있어서 스님은 깜짝 놀라 석불을 일으켜 안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p> <p>그 후 만연사로 모셔 파괴된 안면 부분과 손을 보수하여 천년 거목 아래에 몇 년 전까지 모셨으나 요즈음 다시 땅 속에 파묻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p>
만연사의 불교전설	<p>이제 만연사의 가람 배치를 살펴볼 텐데요, 일주문을 지나 주차장에서 돌계단을 오르면 왼쪽에 범종각이 있고 전방 20여 미터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명부전이 있고 대웅전 약간 뒤편 오른쪽에 나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전 오른쪽 뒤편에 한산전이 있고 종무소와 요사채는 대웅전 오른쪽 앞 편에 세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p> <p>대웅전은 맞배지붕에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안에는 목조삼존불이 모셔져 있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산신각에 있어야 할 산신상과 칠성탱화·산신탱화 등이 대웅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연사에는 산신각이 없어 산신각을 짓기 전까지 산신상이나 산신탱화를 임시로 대웅전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p> <p>재미있는 것은 나한전과 한산전에 오르는 길에 기왓장을 거꾸로 놓아 길을 만든 것입니다. 기왓장은 거꾸로 놓아 사람들이 밟다보니 모두 깨져 있었는데 그 의미를 알 듯 모를 듯합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만연사 이야기 - 만연사의 문화유산</p> <p>1) 가람 배치</p>	<p>나한전은 만연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6·25 때 화마에 휩쓸리지 않고 보존된 유일한 건물인데 기둥도 낡고 단청도 그 색깔이 많이 퇴색되어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나한전은 맞배지붕에 앞면 3칸으로서 석가불상과 아난·가섭왕, 인왕산 2체, 그리고 구멍 뚫리고 찢어진 종이 있습니다. 특히 종은 매달 수가 없는 데 그것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의 제작연대는 절의 창건시기와 같은 무렵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나한전에는 1956년도에 제작한 후불탱화와 16나한도가 있습니다.</p> <p>한산전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절의 가장 위쪽에 있어 사람들과 격리해 둔 느낌이 듭니다. 만연사에서 단청을 하지 않은 유일한 건물로 마지막에 지은 건물처럼 목재의 재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p> <p>요사채는 세 채가 있는데 스님들의 거주공간으로 그 곳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 집니다. 황토색 시멘트와 먹기와를 쌓아 올린 담장은 어른 가슴께 높이로 요사채 안을 쉽게 넘볼 수 있게 하였는데 대문이 없어 자유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가을이면 가장 깊숙한 요사채 건물 가까이, 즉 한산전 석대 밑에 있는 작은 장독대 옆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p> <p>나한전 계단을 내려오면서 바라보는 뒤 배경은 무성한 대나무 숲입니다. 겨울이면 바람과 어울려 밤새 우리가 알 수 없는 계송을 중얼거릴 것입니다. 그것을 대나무를 앞세우고 뒤에 서있는 잘 생긴 소나무들 또한 바람과 어우러져 속세의 것들이 눈을 뜨라고 뭐라고 전할 것입니다.</p> <p>다시 대웅전 앞에 서서 바라보는 대웅전 처마의 단청이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단청은 원색 몇 가지만 사용하는지라 어색한 느낌도 있었지만 볼수록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p> <p>스쳐지나갔던 명부전을 다시 바라보면, 명부전 역시 대웅전처럼 맞배지붕에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지장삼존상을 비롯해 사왕상 10체, 판관·녹사·인왕산 각 2체, 시자상(侍子像) 및 1956년에 봉안된 지장후불탱화가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만연사 이야기 - 만연사의 문화유산</p> <p>2) 문화재</p>	<p>만연사의 중요정보 문화재로는 1660년에 봉안된 동종, 1783년에 제작된 괘불과 괘불지주, 19세기에 봉안된 목조삼존불상·백암당탑·용암당탑 등 부도가 있습니다.</p> <p>특히 만연사의 괘불은 유명합니다. 국가문화재인 보물 1345호 만연사괘불탱화는 평소에는 볼 수 없고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괘불은 1783년 3월에 영산회상도로 조성되어 화순 나한산 만연사에 봉안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괘불 제작에는 비현 금어 스님이, 편수(片手)로는 쾌윤(快允)과 도옥(道玉)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비현 스님은 선암사 괘불 봉안에서는 대화주로 활약하고 홍국사 괘불 제작에서도 금어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수 쾌윤은 홍국사에서는 편수로, 선암사에서는 화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p> <p>괘불의 크기는 길이 760cm, 너비 586cm이며 괘불대는 높이 175cm, 너비 56cm입니다. 괘불대에는 2조의 구멍이 나 있으나 하단 구멍은 나무가 물에 불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괘불함은 길이 674cm, 너비 34cm, 높이 31cm입니다.</p> <p>푸른색이 화면 전반을 휩싸고 있는 이 괘불은 천의 일부와 가사를 붉은 색으로 채색했으며 바탕은 삼베입니다. 우견편단의 착의법으로 가사를 걸친 주존불은 영산교주인 석가모니불이며 영산회상의 장면을 압축하여 묘사했습니다. 두 협시는 지금까지의 삼존도 양식과는 달리 주존의 크기와 대등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18세기 후반의 사회적 분위기의 한 반영으로 보입니다. 신광(身光)은 보이지 않고 등근 두광(頭光)만 그렸고, 그동안 230여 년을 돌돌 말아 보관해 오다보니 그림이 말아질 때 물감이 꺾어져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크게 훼손되지 않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p> <p>부도전은 만연사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6·25전 까지만 해도 이 부도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부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도전 바로 옆에 서있는 노거수의 수령을 약 500년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17~18세기경부터 이 부도전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만연사 이야기</p> <p>- 만연사의 문화유산</p> <p>2) 문화재</p>	<p>부도전에는 7기의 부도가 있습니다. 6기는 노거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1기는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데, 이 부도는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6기의 부도군 중 2기는 명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부제도 원형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p> <p>만연사에 전해지고 있는 총 7기의 부도 중 4기는 당호가 새겨져 있고 어느 정도 연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4기의 부도 중 연대가 가장 바른 것은 1697년에 조성된 향연당 부도입니다. 이 부도는 비록 옥개석이 원형이 아니고 기단부도 갖추지 않은 미비한 것이지만 조선시대 강희(康熙, 1662~1722)에 만들어진 부도 중 탐신이 방형을 한 형식은 희귀한 예로서 조선시대 부도 양식연구에 하나의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p> <p>6·25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만연사 암자 중 동림암은 1777년 화순현감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온 16세의 다산 정약용이 2년 동안 거처하던 곳으로 정약용선생은 이곳에서 독서를 하고 만연산과 무등산을 오르며 호연지기를 키웠습니다. 또한 한말에는 국창 임방울이 득음에 들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p>
<p>마무리</p>	<p>만연사는 고요한 숲과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좋아 탐방객이 즐겨 찾는 사찰이지만 늘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겨울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일 때면 대웅전 앞의 붉은 연등을 단 배롱나무의 아름다움을 보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지만 사계절 내내 단정하고 평온한 모습을 잃지 않는 곳입니다.</p> <p>해마다 껍질을 벗는 배롱나무처럼 출가한 수행자들도 속세의 욕망을 벗고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대웅전 앞에 심었을 배롱나무는 꽃 한 송이가 백일을 피어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진분홍색 꽃이 피고 지기를 거듭해서 이름처럼 백일동안 붉게 피어있는 것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이야기 가득한 천년고찰, 만연사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마무리	<p>이처럼 만연사도 단정하고 평온한 모습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간직한 채 기나긴 세월동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만연사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p> <p>‘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 하신만큼 이곳에서의 신비롭고 유익한 경험으로 인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며, 느끼는 만큼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백년 이백년 후에도 만연사의 이야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다양한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p> <p>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p>

9쪽/9쪽
